기전체가 등장한 이후, 한 왕조가 끝나면 그 역사를 기전체로 정리하는 관행이 생겨, 편년체와 함께 기전체는 正史를 기록하는 양대 산맥으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의 기전체 사서로는 「三國史記」와 「高麗史」가 대표적이며, 편년체 사서로는 「東國通鑑」과 「朝鮮王朝實錄」이 대표적이다. 또 기전체 「삼국사기」와 「고려사」를 바탕으로 하여 편년체 「三國史節要」와 「高麗史節要」를 편찬하기도 했는데, 이때는 먼저 刊印된 두 기전체 사서가 事蹟을 상세히 갖춰 실은 本史 역할을 하고, 뒤에 撰進된 두 편년체 절요는 本史를 檃括하여 보기 편리한 방식으로 응용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紀傳體와 編年體의 敍史 방법은 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우열을 따질 수는 없다. 그 밖의 綱目體나 紀事本末體 같은 敍史 방법 역시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실록에서 權近 관련 기록을 찾으려면, 최소한 권근이 활동했던 太宗 연간의 실록 記事를 다 뒤져야 하지만, 만약 실록이 기전체로 되어 있다면 列傳의 〈權近傳〉만 찾으면 거의 될 일이다. 그러나 〈권근전〉은 年月日까지 알려주는 편년체 實錄만큼은 자세하지 못할지니, 편리함이야 앞설지라도 대신 상세함은 뒤떨어지기 마련이다. 이처럼 하나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단점도 될 수 있고, 단점 역시 다른 것에 비춰보면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史官은 특정 事實을 기록하는 데 가장 타당할 것 같은 체재를 나름대로 선택할 따름이다.

史記를 짓는 大體가 결정되었다면, 그 밖의 敍史 원칙은 凡例에 상정해둔다. 대개의 史書는 모두 卷首에 범례를 두고 있다. 범례는 원래 周나라 周公에게서 기원된 것으로, 史官이 史書를 기록하는 書法이다. 「春秋」에는 범례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義例가 내재되어 있고, 「史記」에는 列傳 마지막에 〈太史公自序〉가 있어 「史記」의 서술 체재나 구성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司馬光의 「資治通鑑」은 目錄과 考異가 따로 만들어져 범례의 역할을 하고, 朱子의 「資治通鑑綱目」은 性理學的 名分論에 입각한 綱目體니 만큼 범례가 매우 자세하다.

우리나라도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는 아직 별도의 범례가 없지만, 조선에 들어와서는 대다수의 史書가 범례를 상정하고 있다. 國初 權近의 「東國史略」에도 범례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世宗文宗朝의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成宗朝의 「동국통감」은 물론, 16세기 이후의 私撰史書들도 대개 첫머리를 범례로 장식한다. 이렇듯 점점 凡例는 史書의 형식적 구비 요소일 뿐만 아니라, 내용과 특징을 가장 간결하고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집약체로 발전해갔다.

성종 16년 7월에 완성된 「동국통감」은 檀君朝鮮 이래 高麗 末까지의 전체 역사를 하나로 체계화시킨 우리나라 최초의 편년체 通史다. 「삼국사기」와 「고려사」 등 기존의 諸書들을 참고하여, 그 동안의 역사인식을 계승 발전시키거나 반박 수정했는데, 士林派가 등장하는 성종조의 성리학 수준을 가늠할 하나의 지표가 되는 이들의 史觀은, 무엇보다 「동국통감」의 범례에 제일 직설적으로 나타나 있다. 총 12條로 구성된 이 책의 범례 중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 온 몇 가지 항목들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金富軾은 高句麗와 百濟의 경우 '東明聖王'이나 '溫祚王'과 같이 始祖 이래 모든 임금의 名號에 '王'자를 넣었지만, 新羅의 경우는 '赫居世居西干'과 같이 居西干次次雄尼師今麻立干이라는 신라 고유의 名號를 죄다 붙여 놓았다. 하지만 「동국통감」은 고유한 신라의 名號를 저속하다며 쓰지 않고, 모두 '王'자로 바꾸어 칭호하였다. 통일신라의 崔致遠과 조선초기의 權近도 이와 같이 역사를 기술했는데, 「동국통감」은 신라왕의 名號를 쓰는 법에 있어서는 최치원과 권근을 따르고 김부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덧붙여, 「동국통감」은 善德眞德眞聖女王의 즉위를 '非常의 變'으로 여기고, 그녀들을 '王'이 아니라 '主'로 내쳐, '善德女主 某年'의 형식으로 年紀를 기술하였다. 물론 여왕의 등극을 폄하하는 시각이

「동국통감」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이미 「삼국사기」에서 김부식이 "신라는 여자를 세워 王位에 있게 했으니, 진실로 亂世의 일이다.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다행이다"라며 극도의 부정적인 言辭를 펼쳤는데, 「동국통감」은 이 뜻을 '女主'라는 용어로 표현하여 貶毁의 시각을 더욱 가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둘째, 조선시대는 '踰年稱元法'을 썼지만, 삼국과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는 조선과 달리 '卽位年稱元法'을 사용하였다. '즉위년칭원법'이란 즉위한 그 해를 곧 '元年'으로 일컫는 법식으로, 前王의 마지막 해가 바로 新王의 元年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540년 7월에 薨逝한 法興王의 경우, 540년은 法興王 27년이자 동시에 眞興王 원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왕의 年紀를 헤아리는 나라에는 소위 '某王 卽位年'은 존재하지 않고 모두 '某王 元年'으로 새 시대가 시작된다. 반면, '유년칭원법'이란 32년을 재위하고 2월에 薨한 世宗의 경우, 世宗 32년 = 文宗 즉위년이 되고, 그 이듬해에 비로소 '문종 원년'을 칭하는 법식이다. 유년칭원법은 소위 前代를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嗣子가 거행하는 孝道의 한 표현이다. 이것이 孝道 관념에서 발로된 법도이기 때문에, 유년칭원법은 儒學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조선시대가 되어서야 정착될 수 있었다.

권근의 『동국통감』

「동국사략」은 三國의 즉위년칭원법을 禮가 아니라 하여 유년칭원법으로 改書함으로써, 각 王의 연대가 「삼국사기」보다 1년씩 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동국통감」은 권근의 改書가 당시의 사실과 어긋난다 하여, 통일신라까지의 역사는 「삼국사기」대로 즉위년칭원법을 사용하여 直敍하였다. 한편, 고려의 경우는 당대에는 즉위년칭원법을 썼지만, 조선초기 「고려사」를 撰進하면서 이미 유년칭원법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동국통감」 역시 그에 따라 유년칭원법으로 敍史하였다. 「고려사」 및 「동국통감」의 고려사 연대가 고려 당대에 만들어진 金石文에 비해 1년씩 뒤처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셋째, 朝鮮이 高麗史를 기술함에 있어 무척이나 신경을 곤두세운 곳은 禑王과 昌王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대목이다. 태조가 威化島回軍 이후 우왕을 폐하고 창왕까지 폐위시킨 데는 이른바 '廢假立眞'이라는 명분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우왕과 창왕은 辛旽의 자손이니 가짜 왕이므로 廢位되어야 한다는 이 논리는, 조선 開國의 정당성과 관련된 매우 중차대한 문제였다. 따라서 기전체 「고려사」는 禑昌을 폄하하여 '辛禑' '辛昌'이라 표현했으며, 禑昌의 事蹟을 世家에 넣지 않고 列傳에 넣어 君主로 취급하지 않았다. "辛禑 父子는 叛逆者 辛旽의 孽子로서 王位를 도둑질한 지 16年이라, 이제 「漢書」 〈王莽傳〉에 準하여 降下시켜서 列傳으로 하고 討賊의 大意를 嚴하게 한다"는 「고려사」 凡例가 바로 그와 같은 조선의 입장을 극명하게 대변해주고 있다.

『동국통감』이 성립된 성종 중반에 와서도 禑昌에 대한 평가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편년체 「동국통감」은 辛禑의 경우, 王莽의 예에 의거하여 재위 '몇 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甲子만 써서 "참람히 왕위를 점거한 죄를 바루었고, 辛昌은 재위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恭讓王 원년에 附記하는" 형태로 끝내버렸다. 禑昌을 辛氏로 간주하고 廢假立眞의 명분을 살려 易姓革命을 정당화하려는 입장은 國初부터 계속 이어져오는 변함없는 규례였던 것이다.

신라왕의 名號와 女王을 평가하는 문제, 卽位年稱元法을 적용할지의 고민, 禑昌을 貶削하는 근거 등은 모두 「동국통감」의 범례에서 논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하지만 범례에만 역사인식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凡例나 纂序文에 드러나 있지 않은 편찬 원칙도 실제로는 상당하다. 따라서 본문 내용을 정말하게 읽어 내려가면, 史官의 안목과 논리, 史官이 살았던 시대의 사상과 지향점 등을 순순히 재어볼 수 있다. 史書를 읽을 때 讀者가 건져 올릴 성과는 결국 讀者의 노력과 진정성에 달려 있을 따름이다.

〈道學世界를 꿈꾼 古人들의 만남(6)〉

退溪선생과 瞻慕堂 林芸

– 純茂有學識 –

朴 永 鎭
(본보 편집위원)

첨모당(瞻慕堂)

임운(林芸 : 1517-1572) 은 51세 되던 정묘년(丁卯,1567) 여름에 이조(吏曹)로부터 효행(孝行)으로 천거되어 특명으로 사직서(社稷署) 참봉(叅奉)을 제수 받았다.

당시로는 노년의 나이에 말직인 참봉 벼슬을 받고 부임을 위해 상경 길에 오르며 그는 한 평생의 처세에 대한 상념에 사로잡힌다. 생각해보면 경상도 안음(安陰)고을의 한미한 은진(恩津) 임씨 집안의 5남 3녀 가운데 5남으로 태어나 가세와 문벌은 그리 볼만한 것이 없었지만, 맏형인 갈천(葛川) 임훈(林薰 : 1500-1584)과 더불어 친상(親喪)에 여묘(廬墓)를 살며 독실한 효행으로 이름이 알려져 3년 전 갑자년(1564)에 형제에게 정려(旌閭)가 내려졌고 이 일로 인해 벼슬을 제수받은 것이었다.

한양에 도착하여 사직서에 근무하며 얼마 후 뜻하지 않게 당대의 대학자로 일컬은 퇴계선생이 서성(西城) 안에 이웃하고 있음을 알고 찾아가 뵙고 1년 동안 종유(從遊)를 하게 된다. 그때 퇴계선생은 첨모당을 몇 차례 만나보고는 '학식이 순정하고 무성하다.(純茂有學識)'고 인물평을 한다. 그 내용이 「退溪先生文集」 27권에 무진년(1568) 겨울에 보낸 「오천 제군에게 답장함.(答烏川諸君)」이라는 편지글에 나온다.

"안음에 사는 임운이 사직서 참봉으로 온 지 1년이 되었는데 근래에 그만 두고 떠났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 순정하고 무성한 학식이 있었는데 그가 떠났다니 애석합니다. 이를 어찌 할 수 없었습니다. (安陰林芸 以社稷叅奉 來就一年 近已棄去. 觀其人純茂有學識 其去可惜 而無如之何也.)"

라고 썼다. 퇴계는 떠나는 그를 만류하고 붙잡았지만 그의 뜻이 굳어 어쩔 수 없음을 알고 애석하게 여긴 것이다.

이런 인물평이 나온 이유는 첨모당은 다방면에서 경지를 뛰어 넘는 학문적 성취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퇴계문하의 동문이며 함안(咸安) 땅에 살던 표질(表姪 : 甥姪)인 황곡(篁谷) 이칭(李偁 : 1535-1600)이 을미년(1595) 6월에 지은 「外叔瞻慕堂行狀」에 잘 나타나 있다.

'서책에 있어서는 읽지 않은 것이 없었다. 사서(四書), 근사록(近思錄), 심경(心經), 주자서(朱子書) 등에 공력을 다했고 주역(周易)에는 더욱 정통하였다. 더욱이 천문(天文), 지리(地理), 의약(醫藥), 복서(卜筮) 등 섭렵하지 않음이 없었고, 산수(算數)와 병서(兵書)에 대해서도 자임하는 바가 있었다.' 또 맏형 갈천공과 「주역」을 논의하였는데, 맏형은 '사색하고 공부하는 데는 비록 옛 사람이라도 아우를 넘지 못할 것이다. (以爲思索工夫 雖古人 莫或過之)' 한편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도 이 말을 듣고는 탄복하며 '스스로 얻은 오묘함이 있다. (其自得之妙云)'

고 하였다.

한편, 첨모당은 1567년에 사직서 참봉(社稷署參奉)이 된 이후로 1569년 봄에 집경전 참봉(集慶殿參奉), 1570년 여름에 후릉 참봉(厚陵參奉), 겨울에 다시 경기전 참봉(慶基殿參奉), 1572년 봄에 연은전 참봉(延恩殿參奉)에 제수되어 6년 동안 말직만 전전하다가 1572년 8월 1일에 재임지 한양에서 병사하고 만다. 이

때 그의 나이 56세였다. 사후에 조정에서는 영구(靈柩)가 고향 땅으로 내려갈 때, 경기, 충청, 경상감사에게 공문을 보내 상여를 호송토록 배려하였지만, 첨모당은 학문적 성취에 비해 관운이 없어 만년에 출사한 관직이 모두 말직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퇴계선생이 알아보았듯이 그가 갖고 있던 학식은 남달랐다.

〈첨모당 임운의 정려문〉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은 「瞻慕堂集」 서문(序文)에서 "조정에 그의 효행이 알려져 정려가 내리고 또 다시 관직을 주었다. 비록 어쩔 수 없이 벼슬을 했지만 그 본뜻에는 만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마침내 말직으로 일생을 마치자, 친구들이 모두 그의 포부가 실현 되지 못하였음을 애석하게 여겼다."라고 했다. 그의 삶이 보여 준 자취는 관직보다는 학문의 세계에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陶山及門諸賢錄」에 의하면, 퇴계선생이 돌아가시던 해인 경오년(1570) 정월에 도산을 찾아 선생을 배알하였다. 그 때 도산서당 암서헌(巖栖軒) 앞에 매화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선생은 그것을 가리키며 "이것은 그대와 동향(同鄕)의 나무다."라 하시고, 시 한 마리를 지어 보여 주시며 학문(學問)과 행의(行義)를 권면(勸勉)하셨다.

그해 겨울에 경기전 참봉으로 부임한 첨모당은 달포 뒤에 퇴계선생의 부음을 받았다. 청천벽력 같은 아픔이 가슴을 때렸지만 전주(全州)라는 원로(遠路)와 시임(時任)에서 탈석(脫席)할 입장이 못 되자, 멀리서 절하며 사람을 보내어 치제를 하였다.(門下生恩津林芸遙拜遣人致祭) 그 때가 신미년(1571) 2월 18일이었다. 그는 울면서 쓴 제문에서 '소자가 가르침을 받은 지 이제 다섯 성상이 흘렀습니다. 저를 낳은 자는 부모지만, 저를 가르친 분은 선생이십니다.(小子摳衣 今五星霜 生我父母 誨我先生)' 라며 사제의 연을 부모의 천륜에 비유하며 애통한 심사를 영전에 고하였다.

또 「瞻慕堂集」에는 「도산을 그리워하며(慕陶山)」와 「도산을 우러르며(仰陶山)」라는 시가 남아 있는데 퇴계선생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운 마음과 외경의 심사를 그려 놓았다.

옷자락 걷고 선생을 뵈오니 외롭고 보잘것없어 부끄러웠네.
학문은 언제 고요하고 안정된 적이 있었던가?
덮힌 것 열면 혹시나 해와 달을 볼 수 있을까!
한 평생 변함없이 높은 산만 바라보리라.

摳衣函丈愧孤寒　問學何曾到靜安
發覆倘能瞻日月　一生終始仰高山

누가 마음 깨는 한줄기 바람을 보내어
어두운 가운데 부질없는 늙음을 면하게 했던가?
지금부터 이렇게 다시 어두운 길에서 넘어진다면
이연평(李延平)같은 불세옹(不世翁)을 의지하리라!

誰遣醒心一縷風　免敎虛老醉昏中
從今豈復冥顚路　賴有延平不世翁

한편, 후학들의 존경은 미수(眉叟) 허목(許穆)이 지은 「瞻慕堂墓碣銘」에 '박학하면서도 전일하고 확고하면서도 평이하다. 아아! 군자의 성취여! (博而專 確而平 嗚呼 君子之成)' 이라는 군더더기가 없는 12글자의 아주 짤막한 말로 첨모당의 인품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다.

첨모당은 거처지 몇 리 위의 노동(蘆洞)에 암천(岩泉)이 있어 자호(自號)를 노동산인(蘆洞散人)이라 하였다. 사후에 효자로서 사헌부 대사헌에 증직되어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을 모신 용문서원(龍門書院)에 만형 갈천공과 함께 종향되었다.

이들의 만남은 미관말직의 벼슬을 살려 고단한 상경 길에 올랐다가 뜻하지 않게 이웃에 살던 대학자를 만나 학문적 교유와 자신의 성취를 통해 사제간에 서로 아끼는 헌지(軒輊)의 만남이 아니었다.

〈수필〉

뿌리 가꾸어야 가지 무성하리

– 시조 묘사에 참례하고 –

李 炳 壽
(본원 이사)

오늘은 음력 10월 초하루, 우리 합천이씨의 시조(始祖) 강양군(江陽君) 묘사날이다. 금년에는 부산종친회에서 제수를 차리기로 되었기에 책임도 있고, 따라서 참여 제관(祭官) 수도 많았다. 어제 이미 합천 화수회원들과의 사전 준비를 위해 제1진이 봉고차에 합승해 출발하였으며, 오늘도 봉고차 한 대가 모자라 개인 승용차를 보태어 20명이 함께 아침 7시 정각에 영광도서 앞에서 출발하였다.

묘사철인지라, 약간 교통체증이 있었으나, 이내 곧 풀리었다. 단풍이 한창인 경관 속을 누비면서 3시간 가까이 달려 10시 전에 묘소에 당도하였다. 서울, 충청, 전라도 등 전국에서 모여든 약 300여 명의 제관들이 참례하였다. 두루마기, 유건 등 제복 차림을 갖춘 제관은 5명에 하나 정도이고, 나머지는 양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위쪽의 시조 할아버지 묘소와 아래쪽의 할머니(군부인) 묘소를 각각 둘러싸고 서서 마이크를 잡은 집례(執禮)의 낭랑한 구령에 따라 진행이 되었다. 약 한 시간 반이 소요되었으며, 마치고서는 일족들이 끼리끼리 모여 앉아 정담을 나누며 음복하는 시간도 뜻이 있었다.

대체 묘사는 무엇 때문에 지내는 것일까를 생각해보게 된다.

나의 선조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겠는가를 생각할 때, 선조는 얼마나 고마우신 존재인가? 나는 이 날 선조의 영혼 앞에서 나를 있게 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드리고, 조상님에게 부끄럼 없는 후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저승에서의 조상님의 명복(冥福)을 빌면서 제물을 차려놓고 의식을 올리는 자리에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하였다. 아마 동참한 일족들도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오늘날 급격한 시대 변천으로 물질만능의 풍조에 말려 정신문화가 경시됨으로써 도덕성이 허물어지고 있어 우려의 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효사상은 인도 시성(詩聖) 타고르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대가족제도와 효정신의 실천국인 코리아가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고 할 만큼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미풍이었는데, 효사상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유교에서의 삼강오륜(三綱五倫)에는 물론 현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군신유의(君臣有義)란 한 덕목만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자간에 친함이 있어야(父子有親) 하고, 부부간에 구별이 있어야(夫婦有別) 하며, 어른과 아이 사이에 질서가 있어야(長幼有序) 하고 벗과 벗은 믿음이 있어야(朋友有信) 한다는, 네 항목은 그대로 오늘날에도 통용될 수 있는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세상에 부모 없는 자식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할진대,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섬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도리다. 그렇다면 그 부모를 낳아준 조부모 또한 나의 뿌리가 아닌가? 나무에 뿌리가 있어 줄기와 잎이 돋아나듯이, 사람에게도 선

조란 뿌리가 있었기에 자손된 우리가 태어난 것이라면, 우리는 곧 가지요 잎이 아닌가? 따라서 조상 섬기고 제사 지내는 것은 추효(追孝)로서, 부모를 섬기는 효 정신에 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묘사에 참여한 젊은 일족들에게 "나무의 뿌리를 가꾸면 줄기가 튼튼해지고 가지와 잎이 무성해지듯,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선조에게 정성들여 제사를 지내면 자손이 번창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런 이치가 아닌가?"하고, "앞으로 우리는 자기 부모 모시기와 선조 제사 지내기를 동일시하고 정성을 다해 지내자"고 하였는데, 이것이 일족들에게 얼마나 먹혀 들어갈는지?

최근에 와서 그나마 우리 사회에 각 문중마다 묘사를 정신들여 지내는 풍습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된다. 논어에 '효행은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기에 '효자 중에 빗나간 인간 없다' 는 말도 있다. 뿌리를 가꾸면 가지 무성해지리.

이 날 나는 시조 묘사에 참례하고 나니 즐겁고 흐뭇하고 보람도 느껴, 행복감에 젖어 있었기에 나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내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지 하고 마음먹고 있다.

問 辨 (2)

■ 수양자(收養子)과 계후자(繼後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부산진구 개금동 K생)

수양자(收養子)와 계후자(繼後子)

늙어서 의지할 자녀가 없는 노인이나 어려서 돌봐줄 부모가 없는 아이나 모두 불행한 사람으로 예로부터 사궁(四窮)의 하나로 일컬어 왔습니다. 예법에는 이를 위하여 수양(收養)과 계후(繼後)의 제도가 두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혈연관계의 친분이 없는 다른 사람의 어린 아이를 데려다 양육하여 후사로 삼는 것을 수양(收養)이라 하는데, 이 때 수양한 사람을 수양모(收養母), 또는 수양부(收養父)라 하고, 수양된 자를 수양자(收養子)라 합니다. 3세 이전에 수양된 자는 수양부모의 양육해 준 은정에 대하여 낳아준 친생부모에 상당하는 의리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부모를 잃고 의지할 곳이 없는 어린 아이를 그 친척이나 이웃에서 데려다가 양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시양(侍養)이라 합니다. 시양의 경우에는 그 양육의 은정이 깊다 하더라도 부모 자식의 의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손이 없어서 친족의 자손 중에 해당하는 항렬의 아이를 데려다가 후사로 삼는 것을 계후(繼後)라고 합니다. 계후자(繼後子)는 소후부모(所後父母)의 가계를 계승하기 때문에 소후부모(所後父母)를 부모로 하고, 친생부모(親生父母)와의 관계를 한 등급 낮추어 처신합니다. 그 외에 의자녀(義子女)나 의부모(義父母), 의형제(義兄弟)의 속습이 있기는 하지만 예법에서 논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계후자나 시양자나 수양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양자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인간관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최근에는 친양자(親養子)라는 해괴한 발상을 내어 친생부모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양부모와의 관계를 친생부모와 다름없게 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이는 고아인 입양자의 처지를 배려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은 친자와 계후자, 수양자, 시양자 사이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형제와 친족 관계의 은정만 해칠 뿐, 고아의 처지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鄭景柱(文學博士, 慶星大 敎授)

靑山不老

우리 退溪學硏究院에는 萬古에 푸른 靑山 같은 老益壯의 어른이 많으시다. 눈 속의 松柏처럼, 梅花처럼 우리를 다독이고 訓導하시는 어른들을 찾아뵙는 欄을 마련한다. 「靑山不老」 그 첫 번째로 雲樵 徐鍾慶 선생을 모신다. (編輯長)

雲楚 徐鍾慶선생의 「行有餘力 則以學文」

퇴계학 부산연구원에는 다른 단체보다 연로하신 어르신이 많다. 세월이 가면 모든 사물은 산화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람은 덕목을 갖춘 어른이 된다. 나이만 가지고 어른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 시대 진정한 어른이 계신 것은 나라의 큰 자산이다. 어느 고문서보다 고서화보다 사람이 아름답다.

나는 의당선생님 문하에서 논어와 맹자를 읽고 있었다. 그때 남자일색이던 퇴계학연구원에서 여성회를 만들기 위해 몇 분의 어른들께서 오셨다. 그리고 다음해(1997~8년 운초문고 p74) 나는 외람되게도 퇴계학부산연구원 여성회 회장이 되었다. 백여명의 여성회원들과 함께 안동의 도산서원을 갔다. 대표로 종손인 이동은(李東恩)옹께 폐백을 드리는 영광을 얻었는데, 그때 이끌어 주셨던 분이 바로 운초선생이시다.

운초(雲樵) 서종경(徐鍾慶)선생은 1916년(丙辰生) 기계면 가천(杞溪面駕川)에서 태어나셨다. 선생의 고향 경북 영일 서래산(西來山) 동류수(東流水) 서가의적지(徐家宜適地)는 본래부터 언행이 순실하여 은운정(隱雲亭)에 모여 합동세배를 하는 효도와 예절의 모범이 되는 마을이다.

어려서부터 천자문, 동몽선습, 소학을 읽다가 보통학교에 입학했다.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의 얼을 찾아, 큰 꿈을 가지고 고구려 땅 만주에 가서 대전공과학원을 졸업하고, 국립하얼빈대학정경과 수업3년에 광복이 되어 귀국하였다. 황폐해진 산하에 임업, 산림녹화, 수력발전연구시설, 연탄제조판매 등의 일을 하였다. 달성서씨 경모록(景慕錄)를 편수하고 대종중 일로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문헌을 수집하고 우리말로 번역하여 발간 배부했다. 얼마 전 선생은 《雲樵文稿》를 간행하였다.

한시를 좋아해 그동안 128수를 지었으며, 1994. 4월 우리 퇴계학부산연구원 사랑방좌장(舍廊房座長) 및 여성대학을 창설하여 교재로 《日用禮節》과 《祭禮》를 편찬하고, 주부교양으로 윤리도덕 회복과 명심보감교재로 인격도야와 자녀교육에 지침이 될 강의를 하였으며, 《全國書院芻記》 등을 간행하였다. 1997년 성균관전의(成均館典儀)를 지냈으며, 담수회(淡水會)와 퇴계학연구원에서 퇴계사상의 앙양과 선교(宣敎)로써 20여년의 세월을 퇴계선생의 뜻과 같이했다. 공자님의 말씀 중 '行有餘力 則以學文'을 평생의 신조로 삼아 학문보다 인격 완성의 수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운초선생은 "九十星霜에 白髮星星하여 朝暮없는 人生이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어느 사람을 대할 때, 내 부모 형제가 아닌데도

너무 아까워 "그대로 멈추소서" 외치고 싶은 분이 있다. 선생의 삶은 마치 歲寒圖와도 같다. 한 올 흐트러짐 없이 고아하고 깨끗한 선비, 그는 퇴계학 부산연구원의 큰 어른이시다.

오늘도 진주 따님 집에서 부산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한걸음에 오신 九旬의 운초 선생은, 아직 청년이시다. 내일이 입춘이라며 환하게 웃으시는 선생을 사진에 담으니 정녕 丁亥年 봄이다.

秋來暑去莫違時　俗事紛忙序不知
凌雪蒼松含卓節　傲霜黃菊秀妍姿
丹楓絕景胡無詠　好友瓊筵自滿巵
唯覺斜陽掛碧岳　情談未洽再逢期

세월은 어김없이 여름이 가니 가을인데
세상 일 바쁜 중에 철가는 것 몰랐구나.
찬 눈을 견딘 창송 높은 절개가 있고
오상 황국은 고운 모양 뛰어나다
절경의 단풍이라 어찌 노래 없을 손가
좋은 친구 좋은 자리에서 술잔 절로 넘치는데
문득 석양은 청산에 걸리었으니
미흡한 정담 다시 만날 기약하세.

〈晩秋 雲樵文稿〉

靑山은 老衰하지 않는다. 선생의 삶은 마치 세한도와도 같다. 가을햇살에 단풍빛깔이 고울 뿐이다. 혹여, 이 글이 선생께 혹은 독자들께 누를 끼치는 일이 될까 조심스럽다.

柳昌熙 記(本報 編輯委員)

'한자·국사·국어 잘해야 취업'

대기업, 관련과목 자격증 따면 가산점 줘

앞으로 주요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선 한자뿐 아니라 국사와 국어능력을 키워야 한다. 대기업들이 최근 한자에 이어 국사와 국어능력까지 요구하는 독자적인 전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것.

한자능력의 경우 중국·일본 등 아시아 한자 문화권 국가와의 경제교류 확대에 따라 수요가 늘어났다. 국사와 국어능력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여파에 따른 올바른 국가관과 민족적 자긍심을 가진 인재를 확보키 위한 것이다.

대기업들은 이들 3개 과목 모두 또는 1, 2개 과목에 대해 능력검정 자격증을 취득한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자체적으로 필기시험을 치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사시험의 합격자와 불합격자 간의 성적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들 과목에 대한 가산점이 결국 당락을 좌우하는 최대 변수인 것.

이와 관련해 최근 우리은행이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채용(1천명 수준) 때부터 국사와 국어, 한자능력 자격증을 취득한 지원자에 대해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또 삼성그룹을 비롯해 두산그룹, 한국전력공사, 현대건설, 금호아시아나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등도 한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전형과정에서 자체 시험을 치르고 있다. 또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와 국어가 필기시험 필수과목으로 지정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사와 국어 능력도 취업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구직자들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KBS의 한국어능력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 한자능력검정시험, 한자자격시험 등을 활용, 미리 자격증을 따두는 것이 필요하다.

〈2007. 2. 21 부산시보에서〉

〈연재4〉

漢文文法(Ⅱ-2)

-'而'의 用法에 대하여-

趙 柄 悟
(본보 편집위원)

※ 지난 호에는 지면 관계로 而' 의 用法에 대한 일부만을 소개하였다. 이번 호에는 而' 의 나머지 用法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5) '(주어+而+서술어)'의 구조일 경우 '而'가 가정문을 유도함 : 이 때의 '而'는 역접의 의미를 내포함. *간혹 '而 자체를 를 '만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자도 있음.
管氏而知禮 孰不知禮 [論語, 八佾] (관중이 예를 안다면 누가 예를 모르겠는가?)
富而可求也 雖執鞭之士 吾亦爲之 [論語, 述而] (富가 (만일) 구해서 될 수 있다면 비록 마부의 노릇이라도 나는 또한 그것을 하겠다)

6) 자격, 신분(~로서): 이 때의 '而'는 가정문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음.
子曰 於止 知其所止 可以人而不如鳥乎 [大學]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앉을 만한 곳에 앉을 줄을 아니 사람으로서 새만 못해서 되겠는가?"라고 하셨다)
人而無志 終身無成 (사람으로서 뜻을 세움이 없으면 종신토록 이루는 것이 없다)-'而'가 가정문을 유도한 경우임.
人而無恒 不可以作巫醫 [論語, 子路] (사람으로서 일정한 마음이 없으면 무당이나 의원도 될 수 없다)-'而'가 가정문을 유도한 경우임.

7) 한정 종결사: 而=而已=而已矣(~일 뿐이다, ~일 따름이다)
孔孟之道 正其道而 不謀其利 (공자와 맹자의 도는 그 도를 바르게 할 뿐이고 그 이익을 꾀하지 않는다)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선생님의 도는 충성과 용서일 따름이다)

* '而'가 종결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한정' 뿐만이 아니라 '권유'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음.
已而 已而 今之從政者殆而[論語, 微子] (그만하자, 그만하자, 오늘날의 벼슬아치들은 위태하다)-앞의 '而' 2개는 권유로 쓰였고, 뒤의 '而'는 語助辭로서 무의미한 助字로 사용되었다.

8) 語助辭: '而'는 무의미한 助字로 사용되기도 함.
字而幼孩 遂而鷄豚 [柳宗元, 種樹郭橐駝傳]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닭과 돼지를 기르다)

9) '而'의 앞에는 주어뿐만이 아니라 목적어나 객어가 놓이기도 함.
㉠ '而' 앞에 주어가 놓인 경우
孰君而無稱 [公羊傳, 昭公 25年] (어느 왕이[인들] 칭함이 없겠는가?)
十人而從一人者 寧力不勝 智不若耶 畏之也 [戰國策, 趙策] (열 사람이 도리어 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어찌 힘이 (그를) 능가하지 못하고 지혜가 (그만) 못해서이겠는가?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이다)

㉡ '而' 앞에 목적어가 놓인 경우
右經一章 蓋孔子之言而曾子述之 [大學] (오른편은 경문의 일장이니 대개 공자의 말씀을 증자가 기술하셨다)
非其鬼而祭之 諂也 見義不爲 無勇也 [論語, 爲政] (그 제사지내어야 할 귀신이 아닌 것을 제사지내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고 義를 보고 행하지 않는 것은 (참된) 용기가 없는 것이다)

㉢ '而' 앞에 객어가 놓인 경우
安謂所處而安 [大學] (安은 처한 바에 편안한 것을 말한다)
人之其所親愛而辟焉 [大學] (사람은 그가 친애하는 것에 편벽된다)
與朋友交 言而有信 雖曰未學 吾必謂之學矣 [論語, 學而] (친구와 사귀면서 말에 믿음이 있다면 비록 (그가) 아직 배우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웠다고 할 것이다)
非原始而知所以生 則必不能及終而知所以死 [論語, 先進] (원시에서 생겨나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 반드시 끝에 이르러 죽게 되는 까닭을 알 수 없을 것이다)